

## 사상의학에서 성정과 예방학설에 대한 인식

주인성\*·최선금\*

사상의학은 동무(東武), 리제마(李濟馬)(1837-1900) 선생이 쓴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1894)에서 확립된 것이다. 사상의학이 100년간 임상실천을 거쳐 날따라 흥성해지고 그에 대한 연구가 신입되며 완전화 되고 있다. 사상의학의 성정(性情)과 예방사상은 그의 이론체계와 의학실천 경험을 갖고 있다.

사상(四象) 체질론은 사상의학의 핵심으로 되고 체질의학의 원천으로 병을 다스리고 있지만 단순한 생리 조직학적 기능에 의한 체질의학은 아니다. 사상의학의 사상은 이제마 선생께서 주역(周易), 사상(四象) 즉 양의생사상(兩義生四象)에서 사상을 취하고 태극(太極), 음양(陰陽) 변화의 상이기 때문에 사원(四元)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은 물질적 존재뿐만 아니라 존재적 표상(表象)의 사상이라 해야 한다. 이제마 선생은 이러한 표상적인 것을 『내경』(內經)의 “천지인 합일(天地人合一)”과 “인여천지상응(人與天地相應也)”의 관점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인체를 분석하고 사상으로 나누어 장부(臟腑)의 생리, 병리를 설명한 것이다. 때문에 체질에 따른 심리, 해부, 생리, 병리, 진단, 약리 등 방면에서도 중의학과 판이한 구별점이 있다. 즉 체질의

속성을 안다면 상에 따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은 단순한 약물로서가 아니라 희노애락(喜怒哀樂)--성정의 조절을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오장(五臟)의 심(心)은 중앙의 태극이므로 오장 중 기타 폐비간신(肺脾肝腎)을 주관하기 때문에 유형(有形)의 심과 무형(無形)의 심을 같이 다스려야 기타 장기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인소의 영향이 심장 본 자신의 기능과 기질적 변화가 일으키는 영향보다 크다.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에서는 “비박탐나의 심지청탁에 네가지가 같은 중에도 만 가지로 부동한 점이 있는데 이는 인욕의 활협때문인 것이다.”(鄙薄貪懦之心地清濁四不同中有萬不同 人欲之闊狹也)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질병을 예방하자면 우선 심리상 건강한 마음 즉 무욕(無欲)해야 하고 가슴이 넓어야 하며 희노애락을 적당히 조절하는 외에 유형의 심장을 보호하고 단련시켜야 하며 과분한 활동과 자극을 삼가하여야 한다.

둘째, 희노애락인 성정이 사상 장부의 대소를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희노애락이 장부의 대소 형성에 대한 영향은 『동

\* 연변의학원국제중의학부

의수세보원, 四端論』에서 말한 바와 같이 太陽人は 哀性은 遠散하지만 怒情은 促急하니 哀性이 遠散하면 氣가 肺로 注入되어 肺는 더욱 盛하고 怒情이 促急하면 氣가 肝을 激動시켜 肝은 더욱 冑이울 것이니 太陽의 臟局이 肺大肝小로 形成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少陽人は 怒性은 宏抱하지만 哀情은 促急하니 怒性이 宏抱하면 氣가 脾로 注入되어 脾는 더욱 盛하고 哀情의 促急하면 氣가 腎을 激動시켜 腎은 더욱 冑이울 것이니 少陽의 臟局이 脾大腎小로 形成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太陰人は 喜性은 廣張하지만 樂情은 促急하니 喜性이 廣張하면 氣가 肝으로 注入되어 肝은 더욱 盛하고 樂情이 促急하면 氣가 肺를 激動시켜 肺는 더욱 冑이울 것이니 太陰의 臟局이 肝大肺小로 形成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少陰人は 樂性은 深確하지만 喜情은 促急하니 樂性이 深確하면 氣가 腎으로 注入되어 腎은 더욱 盛하고 喜性이 促急하면 氣가 脾를 激動시켜 脾는 더욱 冑이울 것이니 少陰의 臟局이 腎大脾小가 形成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보아 성정이 장기 대소와 사상인 체질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방면으로 되기 때문에 태양인은 사납게 노하고 몹시 슬퍼하는 정을 스스로 억제해야 폐와 간이 상대적 평형을 이루고 소양인은 몹시 슬퍼하고 사납게 노하는 정을 스스로 억제해야 비와 신이 상대적 균형을 이루며 태음인은 허탕하게 즐거워하는 정과 몹시 기뻐하는 정을 스스로 억제해야 간과 폐가 조절되는 것이고 소음인은 허탕하게 기뻐하고 몹시 즐거워하는 것을 억제해야 신과 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이제마선생이 제출하기를 인간의 본질은 결코 그의 장부 외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형과 장기 대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형의 정신적 생명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노애락이 갖고 있는 음양속성과 장부에 대한 음양평형을 주의하여야 하고 성정의 음양속성에 따

라 장부의 대소와 음양, 상하초(上下焦)간의 평형을 유지하여야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四端論』에서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하며 喜氣는 放降하고 樂氣는 陷降한다”고 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슬픔과 노하는 기운은 양에 속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운은 음에 속한다. 또 제출하기를 “上升之氣過多 즉 下焦傷이요, 下降之氣過多 즉 上焦傷이라” 하였으니 양적 기운이 順動하면 發越하고 음적 기운이 順動하면 緩安하므로서 희노애락이 순하게 동하면 음양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초를 조화한다. 이 역시 질병 예방에서의 성정이 가지는 명석한 논설이다.

넷째, 성정의 과분한 動에 대한 장부의 병리적 영향을 살펴보면 『四端論』에서 말한 바와 같이 “哀怒之氣는 逆動하면 暴發하여 한꺼번에 위로 오르고 喜樂之氣는 逆動하면 浪發하여 한꺼번에 아래로 내려간다. 上升之氣가 逆動하면서 한꺼번에 위로 오르면 肝, 腎이 傷하고, 下降之氣가 逆動하면서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면 脾, 肺가 傷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듯 동하는 것은 칼로 장을 베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한번 크게 동하면 10년이 가도 회복되기 어렵다.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十年難復》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때문에 성정이 장부에 미치는 병리적 영향은 질병발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동하는 성정을 억제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장부 병리적 변화를 방지하는 최선의 요법이라 할 수 있다.

이제마선생의 질병 예방 사상은 희노애락-성정이 장부의 대소 형성에 대한 영향과 작용 그리고 장부의 생리병리적 영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인적관계, 직장에서의 여러가지 희노애락의 변화는 모두 장부기능에 수시로 영향을 주어 질병을 발생할 수 있다. 때문

에 회노애락의 과분한 격동을 억제하고 순하게 등하는 것은 질병 예방에서의 요점으로 된다.

## 參 考 文 獻

1. 李濟馬『東醫壽世保元』
2. 東武 李濟馬著 洪淳用 李乙浩譯述『四象醫學原論』
3. 金性鈞『東洋醫學別冊』 14~18 2號 15卷 1989
4. 『中醫百科全書, 朝醫學』 100